

칠장사 신도 이영임 불자 자비기금 3천만 원 보시해

논산훈련소 법당, 로터스월드, 연꽃마을 3곳 후원

안성 칠장사에 다니는 이영임(법명 선화궁) 씨가 자비나눔기금 3000만 원을 보시했다. 이영임 씨와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은 지난 7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후래희 마음을 내어 주어 고맙다”고 치하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이영임 불자의 선행(善行)이 널리 알려지고 잘 회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기금전달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해경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이 배석했다.

자비행을 실천한 이영임 씨는 “칠장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불교계를 위해, 그리고 좋은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시절인연이 잘 맞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영임 씨는 “우리나라도 좋지만 형편이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캄보디아에 좋은 일 많이 하는 로터스월드에도 지정기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젊은 군인들은 한창 먹고 힘을 낼 때”라면서 “그들이 신심을 내어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논산훈련소 법당 신축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성에서 파라밀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은 칠장사가 그동안 꾸준히 후원을 해왔고,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임 불자가 기부금을 지정 기탁한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신도 이영임 씨(사진 맨 오른쪽)가 지난 7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자비나눔기금 3000만 원을 보시했다.

기관의 대표들이 고마움을 전했다.

◇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종단 숙원사업에 재가불자가 동참해 준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는 논산훈련소의 법당을 짓는 일에 뜻을 같이해 주고 정성을 보태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법당을 잘 지어서 좋은 인성과 건강한 체력을 겸비한 젊은이들을 양성하도록 노력해 보답하겠다.”

◇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로터스월드가 활동하는 신문기사를 보고 마음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에 미담사례가 전이(轉移)되어서, 우리 불교가 자비실천종교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더욱 이웃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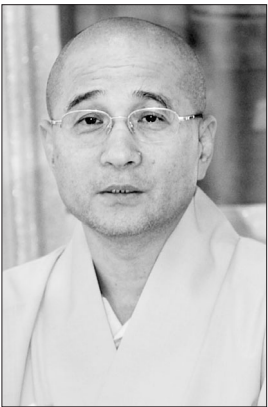
관심을 갖는 불자들이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주는 불교가 되어 한국 사회 최고의 종교로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

◇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스님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은 지난해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생신잔치를 위해 매달 100만원씩 보시하고 있다. 항상 마음으로부터 고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칠장사에 다니는 이영임 불자가 기탁을 해주어 정말 감사드린다. 많은 불자들이 보시의 정신과 보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제공해 주었다. 이영임 불자의 선행이 다른 불자들에게 많이 전달되어서 보시의 의미와 나눔의 철학이 불교계에 확산되길 바란다.”

이성수 기자

“타종교인 참여한 단체에서 종단 소임자 사퇴 거론 부적절”

영담스님 단독인터뷰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영담스님과 그의 단독 인터뷰는 지난 7월28일 오전10시 총무부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에서 영담스님(사진)은 “종단 내부문제를 다루면서 외부 인사를 초빙한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교도들이 참여한 단체에서 종단 소임자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교NGO의 사임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영담스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단체가 총무원장 스님을 면담하고, 부장들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단 내부문제에 외부인사 초빙한 것은 진정성에 문제 있다”

면서 “인사권은 총무원장스님에게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불교NGO가 시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부정을 저지르고, 도독질을 하거나, 사기를 쳤다면 퇴진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4대강 개발) 지지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담스님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피켓시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담스님은 “불교단체들이 주장을 펼 수는 있다”고 전

제한 후 “하지만 시위 방식이나 내용이 불교적인 자세에서 벗어난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9일 4대강 생명살림불교연대가 전개한 시위에서 은사 스님을 명기한 피켓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홍익범이라 할 지라도 그의 부모를 거론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불교연대가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담스님은 “수경스님은 모든 것을 놓고 잠적한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수경스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경스님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담스님은 “불교연대가 내부 문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이며 “내부적으로 대표도 선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수경스님)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영담스님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4대강 사업’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총무부장 입장에서는 현재 화쟁위원회에서 4대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는 대북문제(교류 활성화)와 4대강 문제(국민의 지지를 전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영담스님은 4대강생명불교연대의 토론 요구에 대해 “대표자가 토론에 나올 경우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최재형장 뒷이야기

공원법에 막힌 수덕사 요양원 불사

전통사찰 대부분이 국립과 도립, 군립공원에 위치해 있어 불사에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7월 통도사에서 전국 본·말사주지 1500여 명이 모여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결의대회를 열었겠는가? 덕숭총림 수덕사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놓고도 노인요양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덕사가 노인요양원 건립하려는 곳은 유스호스텔이 있던 자리로 덕산도립공원 공원집단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국비 10억8600만원과 도비 4억66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충청남도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돼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덕사는 지난해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남도, 국회, 환경부 등에 공원집단지구에 노인요양시설의 신축 가능여부와 공원구역에서 부분해제를 요구해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수덕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덕산도립공원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임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공원집단지설지구에 호텔과 음식점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노인요양원은 불가능하다. 노인요양원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공원의 부분해제 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가능 항목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

자연공원법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부터 스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사찰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충청남도의 현명한 판단으로 수덕사 노인요양원이 원만하게 건축되기를 기대한다.

이시영 총림지사장

lsy@ibulgyo.com



퓨전실내악 여연화 앙상블 창단

국악과 서양음악이 어우러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악단이 부산에서 처음 창립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여여선원(주지 정여스님)은 지난 7월26일 부산불교회관 1층 갤러리에서 ‘퓨전 실내악 여연화 앙상블’ 창단식을 열었다.

연주회를 겸한 창단식에는 주지 정여스님을 비롯해 서정혁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정여스님은 이치연 여연화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서양악기와 동양악기를 함께 겸비 한 실내악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창단됐다”며 “실내악단이 발전돼 오케스트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치연 단장은 “지난해부터 각 악기를 전공하는 불자들이 모여 부산불교회 실내악단 창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불교연대, ‘조건 없는 대화’ 촉구 3일 영담스님 관련 반박성명 발표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가 공개대담 제안에 대해 ‘원칙적 수락’ 의사를 밝힌 영담스님에게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는 지난 7월28일 서울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공개대담과 4대강 사업 반대운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불교연대는 7월26일 영담스님이 불교연대의 공개대담 요청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민주평통 종교인도지원위원장 자격 참석, 종현·종범과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규정된 절차 등 대담 성사를 위한 조건을 내세웠다”며 “(영담스님이) 과연 대담에 참석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교연대는 “영담스님이 발표한 불교연대의 성명에 대한 입장과 공개대담 요청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8월3일(7월29일 현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기 2554(2010)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공고

본중에서는 현대사회를 선도하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 2554(2010)년도 국내·해외 장학승’을 선발합니다.

- 다 음 -

■ 선발요강

1) 선발 대상

- ① 국내 장학승 :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 및 재학중인 승려
- ② 해외 장학승 :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 및 재학중인 승려

2) 자격요건

- ① 본종의 비구, 비구니
- ② 종현 제 9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기타 종현·종범 및 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 인원

- ① 국내 장학승 : 석사 〇명, 박사 〇명
- ② 해외 장학승 : 석사 〇명, 박사 〇명

4) 지급액 및 지급 원칙

- ① 1인당 지급액은 입학 예정 또는 재학기관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② 선발된 장학승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되, 매년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선발 전공분야

- ① 불 교 학 : 계율·율장·청규, 한국불교사(근·현대), 초기불교, 불전언어(범어, 팔리어, 티벳어), 대승불교, 선불교 등
- ② 응용불교학 : 윤리학(생명, 생태), 법학, 철학(사회철학, 정치철학), 비교종교학, 불교상담학, 교육학, 불교호스피스 등
- ③ 불 교 문 화 : 불교문화재, 불교의례, 불교문화콘텐츠, 불교음악 등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수행이력서
- ③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④ 학부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 ⑤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 ⑥ 서약서
- ⑦ 자기소개서(수학계획서 포함)
- ⑧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추천서)
- ⑨ 재정보증서

■ 의무사항

1) 결과보고

국내(해외) 장학승: 연 1회 결과보고서 1부 및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취득학위증 사본 1부, 논문 2부(외국어 논문의 경우 한글 요약서 첨부) 제출

2) 소임 의무

장학승은 수혜과정 졸업 후 교육원이 지정하는 곳(중앙총무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수혜기간 만큼의 소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접수기간 : 2010년 8월 4일~ 9월 10일까지

■ 결과발표 : 2010년 10월(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교육원)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E-mail: amita031@buddhism.or.kr
전화: 02)2011-1818, 팩스: 02)732-4926

※ 장학승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불기2554(2010)년 8월 4일

장 학 위 원 회 위 원 장 보 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